**NEAR　사무국 전**

　이하와 같이, 이번 실무자 워크숍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２０２３년７월３일

명예홍보대사 스키 토시유키(角　俊行)

**【회의 개요】**

**6월29일**

9：20～　임병진사무총장과 일본 참가자와의 간담

사무총장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참가가 적은 것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참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음. 이 때문에 효고현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던 방재분과위원회가 행해지지 않게 된 것을 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

사무총장은 이미 방문한 시마네현, 돗토리현 외에 다른 현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사무총장이 출석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어, 나는, NEAR는 상당이 좋은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 한층 더 홍보와 함께 사업 실시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아오모리현의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아오모리현을 방문하시면, 지사나 부지사를 연결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음.

10:00　실무자 워크숍

1. 사무총장 인사
2.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 축사
3. 경주시 부시장 축사
4. 영상 축사→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

11:00　사업개요 소개

1. 기획홍보부장으로부터 NEAR사업계획 보고
2. 러시아 보고（캄차카, 톰스크）
3. 중국 보고（내몽골(신재생에너지 협력)、산둥성(해양・어업)、

랴오닝성（디지털경제））

1. 일본 보고（도야마현(환경)、시마네현(교육・문화)）
2. 한국 보고(울산시, 경상북도(경제・인문))
3. 몽골 보고（관광・홍보）

**13:30 토의**

사무총장　：세계정세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중에, NEAR의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한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음.

내　몽　골：마켓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 부탁.

강　원　도：실무자 회의의 정례화. 의결사항을 국가에 전달할 것 등. 국장급 회의 개최. 사람이 중요. 각국의 인재 배치. 이것으로 인해 매칭 할 수 있음.

사무총장　：자치체의 수장은 바쁘지만, 가능한 한 방문하고 싶음. 일본에서 공무원 파견 등도 부탁하고 싶음. 어려운 점도 많으나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겠음.

몽　　골　：공동투자를 촉진하는 노력.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러　시　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필요. 시장조사 등 매개는 어떤지.

사무총장　：예산 문제.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 15억원. 16인의 멤버로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전력으로 의견을 반영하겠음.

광주광역시：회원단체 페이지를 만들어 주길 바람. NEAR백서를 만들어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해 주길 바람.

사무총장　：현재 홈페이지는 6개국으로 운영. 회원의 사업내용 홍보에 중심이 두도록 하였음. 연차보고서 작성하고 있으니 그것을 홍보에 사용해 주기 바람.

강　원　도：NEAR 홈페이지는 잘 정리되어 있음. 담당자가 NEAR의 내용을 모를 뿐. 사무총장이 관계 단체의 담당자를 어느 정도 고정화 하도록 제안하고 싶음. 참가자에 기업을 포함시켜, 샘플 전시 등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지.

몽　　골：우리 나라에서는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이 최 중요 과제. 대통령과도 협의 하고 있음. 다른 나라에 대한 제안에도 협력. 몽골의 지하자원개발・공동 프로젝트 추진이라면 공동으로 하기 쉬움.

**【보고 및 의견교환을 들은 인상】**

◎　각국 지자체의 보고 의견을 듣고, 각국과 지자체가 NEAR 참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NEAR 사무국이 다양한 생각을 폭넓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일본의 지자체가 NEAR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의 전제가 되는 항목을 참고를 위해 써 두고 싶다.

・일본에서는 최근 ２０년 정도 사이에 감사(監査) 등에서, 비용에 대한 효율이 엄격하게 따지게 되었다. 따라서, NEAR사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자치체측은 자기부담이 어느정도 인지, NEAR와 각국과의 조정을 행하는 인재를 배치 할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어려운 상항에 있음. NEAR의 회의 및 참가・출장도 마찬가지임.

・또한, 일본에서는 선물과 음식을 동반하는 교제비 지출은 극히 엄격해지고 있음. 일본에서 개최하는 파티 등에서는 자부담으로 대응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음. 국제교류를 행함에 있어서는, 파티를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본 자치체의 궁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자치체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민간에서 담당하게 하면 되나, 이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조 만들기(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넣은 조직 설치 등)에 이르고 있는 지자체는 그다지 없음.

・이상은 저의 인상이기 때문에 조사를 행하여, 환경분과위원회를 담당하고 하고 있는 도야마현의 실정을 파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NEAR사업은, 좋은 사업이 많고, 많은 참가국과 연계 속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치체직원의 국제교류 트레이닝의 장으로도 중요할 것임.　NEAR사업을 일본에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싶음。

◎ 이번 워크숍 참가에 있어, 사무국, 특히 김서현씨에게 대단히 신세 졌음.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드림. 또, 6월 30일 산업시찰에서는 염원하는 포스코를 볼 수 있어 매우 기쁨.